2021.03.22 . NO.658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Hòa Phát

베트남 최초의 민영기업 중 하나인 호아팟은 1992년 건설기기설비 판매 회사로 시작해 차츰 가구제조, 제강, 냉장고, 부동산, 농업 등으로 사업을 넓혀 왔으며, 현재 베트남 최대의 철강기업으로 군림하고 있다.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산업의 쌀'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다.

호아팟은 1996년 호아팟 강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철강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2000년 호아팟 흥옌철강 유한회사, 2001년 호아팟 냉각 주식회사와 호아팟 건설·도시개발 합작회사, 2004년 호아팟 트레이딩 주식회사, 2007년 호아팟 하이두옹철강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계열사를 늘려 나갔다. 같은 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호아팟 그룹 합작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거대 기업집단의 형태를 갖추어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2020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호아팟 철강은 2019년 대비 6.8% 상승한 3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베트남 제일의 철강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했으며, 최초로 철강제품 500만 톤 이상 생산이라는 쾌거를 기록했다. 올 2월에도 호아팟 그룹은 철강제품을 총 43만 9천 톤 판매하여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국제 경제도 회복세를 타면서 베트남 철강산업의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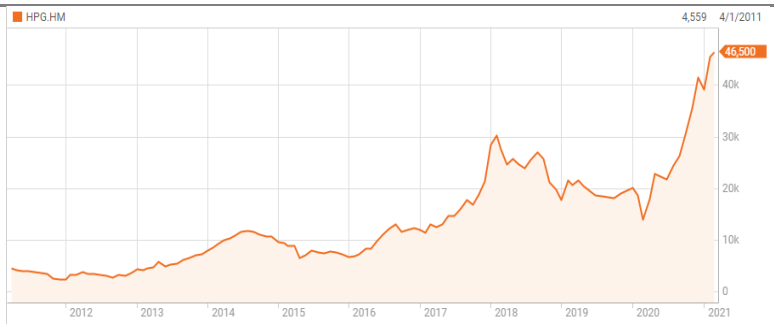
출처: VIETNAMPLUS (링크), 헤럴드경제 (링크), HOAPHAT.COM (링크)

호아팟, 올 1~2월 실적 급성장

호아팟 그룹이 올 1~2월 기간 강관 93,200톤을 판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8.6%의 판매량 상승을 거두었다. 국내외 모두 강관 가격이 급증하는 호재가 겹쳤으며, 2월 수출분은 주로 미국, 호주, 캐나 다, 홍콩으로 향했다. 한편 호아팟 그룹의 자회사 호아팟 강관 주식회사는 아연도금 강철코일을 1만 톤 생산했으며, 호아팟 강판 주식회사는 올 해 2개월간 4만 2천 톤의 판매량 증가를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운 양을 판매했다. 호아팟 그룹은 올해 강관 판매량 92만 톤, 파형철강 판매량 33만 톤을 예측하며 전년보다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호아팟, 컨테이너박스 생산 선언… 베트남 內 수요 잡는다



Hoa Phat Group JSC 주가 추이 (출처: Reuters)

세계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컨테이너박스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아팟 그룹이 베트남 최초로 컨테이너박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박스의 90%는 중국이 생산하는 형편이다. 철강 대기업인 호아팟 그룹은 컨테이너의 원재료인 강판을 자체 생산한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수요를 선점하고자 한다. 호아팟은 빈즈엉 또는 동나이에 공장을 건립하여 내년 2분기부터 대량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이데일리 (링크)

주요기사

베트남 내 고속성장 기업은 어디…500개 공개

Vietnam Report JSC와 VietnamNet이 베트남 내 고속 성장하는 500대 기업 목록을 공개했다. 2011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이 목록은 연간성장률과 실적, 총자산, 세후 이익, 미디어 주목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 An Tien 산업, 꽝닌 항 합작회사, 비엔동 투자사, Sao Mai 그룹을 비롯한 이 목록에 속한 기업의 83.2%는 사기업이며, 이들의 2016년-2019년 연평균성장률은 28.2%에 달했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2월 자동차 판매량 전달 대비 22% 급락

지난 2월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이 전달 대비 22%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지난 달 판매된 자동차는 13,585대였고, 이 가운데 승용차는 6,939대, 상업용 차량은 3,767대, 특수차량은 179대였다. 한편 국내조립대수 역시 전달 대비 41%, 완성차 조립대수는 58% 감소했다. 이는 지난 달의 테트 연휴와 등록비 인하 정책 종료,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VAMA는 올 첫 두 달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21%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 역시 이 통계가 해외 자동차 판매량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불황에 빠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Viet Nam News (링크)

베트남,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선정

영국 경제언론 머니위크 지가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머니위크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년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예년의 6-7%보다 낮은 2.8%이지만, 아시아의 기타 주요 국가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여,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피해를 비껴갔다. 특히 세계 경제가 가장 침체에 빠졌던 작년 2분기에도 베트남은 제로 이상의 성장률을 방어하며 빠르게 회복했다.

2020년 베트남의 성공 요인으로는 방역 성공으로 인한 정부의 신뢰와 장악력 상승,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주식시장의 우상향 강세의 유지 등이 있다. 특히 베트남은 이제까지 감염자 2,500명, 사망자 35명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의 승리자 중 하나가 되었다. 한편, 정부의 방역 대응이 성공적이었던 것과 더불어, 해외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 역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베트남의 높은 교육과 기술 수준이 해외 투자에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금융

호찌민 銀, 협조융자로 운용자본 증액

호찌민시개발은행(HDBank)가 타이완 8대 은행과 인도의 은행이 모인 컨소시엄으로부터 협조융자 USD 7,100만을 수혈해 운용자본을 증액했다.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HDBanl는 4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전 이익 USD 2,536만을 올리며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다. HDBank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데에 운용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비엣콤, 6년 연속 가장 건실한 은행 선정

재무제표상 베트남 은행 가운데 가장 건실한 곳으로 비엣콤 은행이 선정되었다. The Asian Banker가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매년 선정하는 이 순위에서 비엣콤은행은 6년 연속으로 베트남 업체 중 최상위를 차지했고, 올해에는 아태지역에서도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엣콤은행 은 국고에 3억 9천만 USD를 보탰고, 총자산은 8%, 예금은 11% 증가했다. 비엣콤 재무부장 Le Hoang Tung은 어려운 때이지만 튼튼한 재무적 기반 덕분에 은행이 안전성과 고통 분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했다.

출처: VietnamPlus (링크)

박닌 성

전 지역 Region 2

2021년	최저임금(₫)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명칭: Bắc Ninh
성도: Bắc Ninh(1급시, 직할시 승격 예정)
교통: 하노이 30km, 하이퐁·하롱 항 100km / 1번·18번·38번 국도, 노이바이-하롱 고속국도 / 노이바이 국제공항 / 하노이-랑손 철도
GRDP: 2,051억 VND (2020)
연평균성장률: 19.1% (2017)
홍 강 델타의 박닌 성은 베트남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정부의 개발정책과 편리한 교통, 120만 인구에 힘입어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캐논, 대만의 폭스콘, 핀란드의 노키아를 비롯 총 1,300여 개의 해외기업이 투자하는 등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산업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박닌성 정부(링크)](), [서울대학교 신흥지역연구사업단 (링크)]()

옌퐁 제1공단(Yen Phong I)

면적: 658ha
입지: 18번 국도, 하노이 38km, 노이바이 공항 15km, 하이퐁 항 145km
입주 韓 기업: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서울메탈, 락앤락 하노이, KCC, 오뚜기, 오리온 등
비용:
- 임대료: 75 USD/㎡ (관리비 0.4 USD/㎡)
- 전기료: 정부 지침에 따름.
- 물 사용료: IZ 지침에 따름.
- 폐수 처리: 성 정부 지침에 따름.

기타 인프라: 경찰서, 은행, 우체국, 병원, 주유소, 물류센터, 직원기숙사, 텔레콤, 질소 충전소
출처: [VN Industry (링크)]()

옌퐁 제2공단 (Yen Phong II)

면적: 1,200ha
입지: 18번 국도, 하노이 38km, 노이바이 공항 15km, 하이퐁 항 145km
비용:
- 임대료: 75 USD/㎡ (관리비 0.4 USD/㎡)
- 전기료: 정부 지침에 따름.
- 물 사용료: IZ 지침에 따름.
- 폐수 처리: 성 정부 지침에 따름.

기타 인프라: 경비, 은행, 우체국, 병원, 물류센터, 주유소, 직원기숙사, 텔레콤 등
출처: [Invest Vietnam(링크)]()

GS 리테일 (GS Retail)

GS25, 베트남 내 100호점 개점

GS25는 3월 11일, 베트남 빈증에 베트남 현지 100호점인 '베트남 GS25 베카맥스타워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GS25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맹점 전개를 본격화하고 하노이 지역까지 매년 100개 이상의 점포를 출점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할 전략"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급격한 사업확장을 위해, 이제까지 전체 직영점으로 운영되던 베트남 내 점포를 현지인이 점주가 되는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S25 특유의 현지화 전략과 즉석식품 및 프레시푸드 상품 구성으로 이미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증명하듯, 국내 점포에는 이미 일반화된 '커피25' 역시 베트남에 도입하여, 올 1~2월에는 베트남 GS25의 원두커피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83% 증가했다. GS25가 제작 지원하여 지난해 베트남에 방영된 "편의점 샛별이" 등 K-콘텐츠의 영향으로 일종의 관광명소가 되어 북적이는 지점도 즐비하다.

한편 GS25는 베트남의 성공경험으로 얻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몽골 재계 2위 식음료기업 숀콜라이그룹과 손잡고 몽골 GS25 1호점을 개점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GS홈쇼핑 CI 변경… 'GS 브랜드로 승부한다'

지난 1일 GS그룹의 자회사 GS홈쇼핑의 베트남 합작사 기업이미지(CI)가 기존의 VGS Shop에서 GS Shop으로 변경되었다. GS 홈쇼핑은 지난 2012년 베트남 TV홈쇼핑 업체 비비홈쇼핑을 인수해 양사의 사명을 결합한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GS 브랜드를 강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는 자매회사 GS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 GS25와의 이미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전용 채널인 GS Shop은 현재 케이블과 위성, IPTV 등을 통해 베트남 전역에 송출되며 현지의 70% 가구가 시청할 수 있다. GS 홈쇼핑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주문과 온라인 주문이 베트남 내에서 일반화되면서 향후 베트남 TV 쇼핑 시장 전개가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The Guru (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GS 그룹의 자회사 GS 리테일의 편의점 브랜드인 GS25 는 베트남 손킴그룹과 합작벤처를 설립하여 2018 년 국내 편의점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다. 베트남 최대도시 호찌민에 입점한 이후 호찌민 위성도시 빈증, 붕따우 등까지 매장을 확대했다. 2020 년에는 코로나 19 로 인한 불황으로 베트남 토종 편의점업체 빈마트플러스가 점포를 대거 철수한 것과는 반대로, GS25 는 무려 33 개의 신규 점포를 개점하며 베트남 내 브랜드 편의점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은 올 초의 경기회복과 맞아떨어져, GS25 는 1~2 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46.7%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GS25 가 3 년 남짓한 기간 동안 급속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적인 제품을 주력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주효했던 덕분이다. 지난 한 해 GS25 에서 가장 인기 있던 품목 역시 즉석조리 떡볶이, 라볶이, 즉석소시지 등, 베트남 길거리 음식 문화에 한국적 음식을 접목한 독특한 상품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편의점 특유의 저렴한 초기비용과 진입장벽 역시 GS25 의 고속 확장요인으로 꼽힌다.

출처: 한국경제(링크), 한국일보(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jiho@jplawvn.com +84-96-280-601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